

# 국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 방향

## - 상호문화주의 관점의 반영을 바탕으로 -

윤영\*

###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외 한국어 학습자, 그중 세종학당 학습자를 위한 문화교재 개발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국외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이 기관의 운영 목적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확산’, 그리고 ‘국가브랜드의 제고에 기여’라는 매우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의 일방적 전파와 확산은 지구촌이 세계화, 다문화화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언어·문화권 학습자에게 오히려 반감을 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세종학당의 운영 목적 중 두 번째에 제시된 ‘문화상호주의 관점’을 실현하는 데 있다. 민족중심주의, 문화우월주의, 문화동화주의 등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사회적 통합, 그리고 성숙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추구하는 문화상호주의, 즉 상호문화주의(Interkulturalismus)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상생을 이끌 수 있는 이념으로 최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자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성 및 그것의 교육적 실현방법에 대해 살펴 본 후 상호문화주의가 실제 세종학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교육 사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세종한국어』 및 <2015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한 후에는 세종학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 한국문화’교재에 상호문화주의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문화교재, 문화교육과정, 세종학당,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세계화, 세계시민성

\*윤영(E-mail: yyoung@honam.ac.kr)

학위취득대학: 연세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국제학부 한국어학과 교수

본 논문은 2015년도 호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논문접수일 : 2016년 1월 24일 논문수정일 : 2016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13일

#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Materials for Overseas Students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ism

Yun, Young

##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for developing cultural teaching materials designed for overseas students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e specific focus is the King Sejong Institute, established in October 2012 with the explicit purpose of promot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s well as improving the national brand image. However, the study also recognizes that, insofar as the unilateral spread of a cult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trends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it can cause hostility among learners in other cultures. The realization of "interculturalism" as one of the operational goal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could be a solution to this problem. Although it needs further discussion and more solid implementation plans, interculturalism is a philosophy that can lead to the co-existence of cultures; it seeks true social integration as well as a mature attitude for pursuing global citizenship. Based on this critical viewpoint, this study firstly examines the concept of interculturalism and its methods of realization. Secondly the study verifies whether interculturalism has been effectively reflected in the "Sejong Korean Language" program as well as in the "Cultural Curricula of King Sejong Institute". The study concludes with a proposal on how to reflect interculturalism within cultural teaching materials.

**[Key words]** cultural teaching materials, cultural curricula, King Sejong Institute, interculturalism, multiculturalism, global citizenship

## I. 서론

본 연구는 국외 한국어 학습자, 그 중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교재 개발 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세종학당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국외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2012년 10월에 설립한 기관이다.<sup>1)</sup> ‘세종학당 브랜드’의 개발은 강미영·이보라미(2013, 2)의 설명처럼 한국 정부가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되는 한글학교 등을 지원해오던 것과는 달리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외 한국어교육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학당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의지는 단 기간에 세계 곳곳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세종학당의 숫자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2014년 7월 기준으로 130개(54개국)의 세종학당을 운영 중이며<sup>2)</sup> 2016년까지 200개소의 세종학당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야말로 양적으로 큰 성과를 이룬 세종학당은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첫째, ‘국내외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써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통한 한국 문화의 확산’,

둘째, ‘문화상호주의 관점에서 교류를 통한 국가 간 협력 확대’, 셋째,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을 세종학당 브랜드로 통합 육성하여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 넷째, ‘국제적인 언어,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언어와 문화 다양성의 실현’ 등이 그것이다(세종학당 운영지침서 2014 참고).

여기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확산’, 그리고 ‘국가 브랜드의 제고에 기여’라는 매우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목적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자국어 및 자국 문화의 보급 사업은 언어, 문화 제국주의 전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강미영·이보라미 2013, 2-3)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일방적인 전파와 확산은 지구촌이 세계화, 다문화화 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타 언어·문화권 학습자에게 오히려 반감을 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세종학당의 운영 목적 중 두 번째에 제시된 ‘문화상호주의 관점’이라는 철학적 접근의 실현에 있다. 민족 중심주의, 문화 우월주의, 문화 동화주의<sup>3)</sup> 등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사회적 통합, 그리고 성숙한 세계시민<sup>4)</sup>으로서의 자세를 추구하는 문화상호주의,

1) 세종학당은 정부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관리하기 위해 국어기본법 제19조의 2에 근거해 2012년 10월 설립되었다.

2) 전 세계 세종학당의 현황(2014. 07. 기준 - 출처: 세종학당 재단 홈페이지)

대륙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개소	79	24	20	5	2

3) 문화 동화주의(assimilationist model)는 다양한 소수문화를 주류문화에 통합하려는 입장을 말한다.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이 국적변경과 동시에 자국민과 같은 언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이민자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문화에 편입되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대표적인 정책은 미국의 용광로 정책이며 그 외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동화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실시해 왔다(최충욱 외 2009, 27; 박해숙 2014, 114-115 재인용).

4) 세계화 시대의 시민은 국민국가 단위의 의무와 권리뿐만 아니라, 세계와 접촉을 통해 나타나는 의

즉 상호문화주의(interkulturalismus, interculturalism)<sup>5)</sup>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상생을 이룰 수 있는 이념으로 최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자주 언급 되고 있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의 개념,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와 한국 문화교육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되어 온 ‘상호문화주의의 반영’이라는 것이 목표 문화와 자문화의 단순 비교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성 및 그것의 구체적 실현 방법, 즉 한국 문화교재에의 반영 방법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호문화주의 이념의 실현 방법들이 실제 세종학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교육 사업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세종학당의 표준교재인 『세종 한국어』 및 최근 개발된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세종학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종 한국문화’ 교재에 상호문화주의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2015년 4월, ‘세종 한국문화(초급) 교재 개발 사업’을 공고한 세종학당은 초급 한국문화교재를 시작으로 단계별 한국문화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추진방향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을 위한 대표 기관으로서, 문화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재 개발’, ‘한국어 표준교육과정과 연계한 『세종 한국어』 및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 개발연구> 기반 교재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교재 개발 공고에서도 상호문화주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으며, 『세종 한국어』 와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기반으로 교재를 개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상호문화주의의 이론을 검토하고 그것의 반영 방법을 살펴보는 일, 그리고 기존의 두 연구물을 검토하는 일은 꼭 필요하며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무와 권리문제가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인권, 환경문제, 이민자의 권리, 의무 문제,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배려, 관용, 다양성 존중, 정의, 책임, 윤리, 인류애, 생태보호 윤리, 인류공동체 의식 등이 세계시민의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국민국가에서 요구되는 애국심과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과의 개방적인 조화를 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심연수 2013, 59 참고).

5) ‘Interkulturalismus’은 한국에서 ‘상호문화주의’, 혹은 ‘문화상호주의’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에서는 문화상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문화상호주의는 ‘상호주의(호혜주의, reciprocity)’와 관련된 용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Interkulturalismus은 학계나 백과사전에서도 일반적으로 ‘상호문화주의’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문화상호주의’가 아닌 ‘상호문화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II. 상호문화주의의 개념 및 상호문화주의 특성의 반영 방법

### 1. 상호문화주의의 개념

오늘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고 있으며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상호 의존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지

구촌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망을 형성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윤영 2015, 76). 지구촌 사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한 사회 안에서도 다양한 문화 집단이 공존하면서 차별과 지배, 우월 등을 강조하는 이념들은 당연히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과 비판으로부터 모색된 대표적인 이념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둘의 개념과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상호문화주의 이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며, 나아가 상호문화주의 이념을 교재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를 유사 개념이나 혹은 동일 개념으로 이해한다. 이는 앞에서 잠깐 언급 했듯이 두 이념 모두 특정 문화의 지배와 우월을 거부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시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이념의 개념과 특성은 다르다.

‘다문화주의’는 북미(미국, 캐나다)와 호주 등 이민 국가들에서 주로 형성된 개념이고, ‘상호문화주의’는 독일, 프랑스 등 이미 형성된 하나의 주류 사회 안으로 이민자들이 유입된 국가들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그 의미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주의(Multikulturalismus, Multiculturalism)’에서 ‘다(multi)’에 해당하는 라틴어 multus는 ‘다수의, 수많은’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다문화적’이란 단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실로서의 생활 세계를 나타낸다. 반면 ‘상호문화주의

(Interkulturalismus, Interculturalism)’<sup>6)</sup>에서 라틴어 전철 ‘inter’는 ‘사이에’를 뜻하므로 이것은 다양한 생활 세계들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역동성과 관계 된다. 즉 다문화가 하나의 사회 내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는 사실(현상)로서의 사회적 구조를 서술하는 것이라면, 상호문화는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한다(정기섭 2011, 138-139).

이렇듯 다문화주의가 다양한 문화들의 정적인 상태의 공존에 관심을 두는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서로간의 만남, 교류,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이념적 차이는 교육이나 주거 등 다양한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최병두(2014, 92-93)에 따르면 다문화정책에서는 모자이크 상태의 정적인 문화공존을 긍정하는 반면, 상호문화정책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상이한 민족이나 문화 간 상호작용이 없는 공존 상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간주된다.<sup>7)</sup>

6) 상호문화주의의 개념은 20세기 초, 타자, 이방인, 이주민의 긍정성과 사회적 필연성을 설파한 독일의 유대계 사회학자 Simmel에 의해 철학적으로 완성되었다. Simmel은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타자’에 대한 인정을 제시하였으나 당시 독일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1920년대에 미국의 유대계 사회학자들에게 수용되었다가 다시 1970년대에 독일학계에 재수용 되면서 발전하였다(박영자 2012, 306; 최승은 2015, 3 재인용).

7) 예를 들어 주거부문 정책에서 다문화정책은 이민자 밀집 거주 지역 형성을 장려하고 이민자가 모여 사는 구역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려 하지만 상호문화정책은 원주민과 분리되어 이민자끼리 특정 구역에 거주하는 것을 경계한다(오정은 2012, 43). 왜냐하면 이민자 밀집 거주지역이 지역의 게토로 전락하고 일반인들은 출입을 꺼리는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민족, 문화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자 형성된 이념이나 결국 서로 다른 문화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 그것을 넘어 문화들 간의 융합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또한 문화의 내적 갈등이나 권력의 문제를 도외시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Abdallah-Preteille 2004; Batelan 2003; 이민경 2014, 12 재인용), 이민자들이 가지는 문화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즉 다문화주의는 문화 다양성에 평화의 이미지를 투사하는 일종의 엔젤리즘(Angelism)을 표방하면서 다양성 안에 내재된 갈등을 은폐한다는(진은영 2008, 265) 것이다.

이와 달리 상호문화주의는 다양성 안에 내재된 문화 권력의 우열을 해체하고 상호간 동등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한다(Faas et al 2013)는 점에서 다문화주의보다 더 이상적인 이념으로 평가받는다. 상호문화주의가 세계화, 다문화 되어 가는 현 사회에 적합한 이념으로 자주 거론되고 수용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 2. 상호문화주의의 특성 및 교재에의 반영 방법

다음에서는 상호문화주의의 구체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특성을 문화 교재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상호문화주의의 가장 큰 특성은 첫째, 상호문화주의가 쌍방 간의 교류와 소통,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작용을 통해 문화가 수정되고 변화된다고 보는 점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인정과 존중에는 새로운 공존의 방식을 찾기 위한 상호작용이 없다(박혜숙 2014, 118-121 참고).

상호문화주의가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이라는 특성을 교육의 장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문화의 일방적인 전달을 지양하고 쌍방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을 교재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즉 서로 간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상호 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 낯설과 이질감, 충격 등을 넘어 문화의 공존 방식을 찾고,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목표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비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에 대한 탐색과 소통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세종학당에서의 수업은 다양한 문화권과의 교류 없이 하나의 문화권에서만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낯선 문화들을 함께 나누고 이해해가는 과정 역시 상호문화능력을

---

장소가 되어 현지인과 이민자 사이의 격리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정책은 특정 민족의 밀집거주지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밀집거주시설에 민족별 쿼터제를 도입하고자 한다(Wood 2009; 최병두 2014, 93-94).

신장하는 중요한 방법이므로<sup>8)</sup>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문화와 학습자의 문화를 비교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문화를 함께 나누고 비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이 다문화주의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성은 ‘집단성’이 아닌 ‘개별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즉,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이지 그가 속한 문화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호문화주의 교육의 목적은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배우는 데 있으므로 학생들을 범주화된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며 교육의 내용도 특정 국가나 민족이 아니라 개인을 개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상호문화주의에서의 국적, 민족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부분이라는 관점을 지지한다. 반면 다문화주의는 집단과 개인의 관계에서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각 집단은 동질적이라 여긴다. 그리고 개인의 내적인 다양성은 집단의 전체성을

위해 무시된다(홍종열 2012, 391-396 참고).<sup>9)</sup>

상호문화주의가 집단성이 아닌 개별성을 중시한다는 특성은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간과되어 온 부분이다. 기존의 한국어 교재나 한국 문화교육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호문화 활동은 ‘한국 문화에 대해 학습한 후 그 문화 항목에 대한 자국의 상황을 묻는 비교활동’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는 상호문화주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개인은 자신이 태어난 국가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세계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그러므로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문화권 사람들이 모두 같은 문화적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상호문화주의의 이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문화권 안에도 개별적인 문화가 존재하며, 개인마다 문화적 정체성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학습자 각각의 개별적 생각을 존중하고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구성하여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 의지를 강조한다. 강미영 · 이보라미(2013)

8) 상호문화주의는 특정한 문화를 흡수하거나 다른 문화를 지배하여 획일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관용적 태도와 다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문화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동등한 가치를 인정한다. 그리고 문화 안에 존재하는 각 개인들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것’과 ‘낯선 것’, ‘같음’과 ‘다름’을 지각하고 성찰하도록 한다.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낯선 문화를 배울 때 요구되는 관대함을 길러주고, 낯선 것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이질적인 것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게 한다. 또한 문화적으로 낯선 세계와의 만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Ulrich 1997, 50), 인종주의와 외국인 배타주의를 반대하며, 보다 바람직한 세계관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고무시킨다(Schormann 1996, 12; 최승은 2015, 54-56 재인용).

9) 이렇게 특정한 집단이 동일시되고 범주화된다는 특성은 다문화주의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차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리적 공간을 구분하는데(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 집단을 범주화하려는 시도는 경계선을 만들어내고 배제와 거부의 태도를 조장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서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바로 고립된 형태의 소수자 밀집지역을 방치함으로써 다른 그룹들과의 상호 연결을 방해하고 소수그룹의 빈민화와 사회적 배제를 낳는다는 점이다(홍종열 2012).

는 다양한 문화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에 도입할 상호문화주의의 지향점을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상호 작용과 상호 존중’이라고 보고, 상호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한국어, 문화에 대한 자율적 선택의지가 극대화되는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율적 선택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융통성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승연·김희선 외(2015, 208)도 세종학당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외 문화 수업은 교육기관마다 매우 다른 여건 속에서 진행되므로 수업 구성은 무엇보다 유연성(flexibility)과 확장 가능성(extensibility)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자의 자율적 선택의지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개발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특정 문화를 제시하여 학습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문화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항목을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III. 『세종한국어』의 문화 단원 및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 분석

세종학당은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세종학당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교육 사업은 ‘한국문화 전문가 파견’, ‘한국문화 체험 자료 제작 및 보급’, ‘우수 학습자 한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회적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세종학당의 운영 목적에서 강조한 것처럼 한국문화의 확산과 교류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문화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재 개발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sup>10)</sup> 본 장에서는 세종학당의 문화교재 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세종한국어』의 문화 단원, 그리고 세종학당재단이 2014년에 개발한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을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1. 『세종한국어』의 문화 단원 분석

세종학당은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국립국어원 2011; 2010)을 바탕으로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및 표준교재

10) 한국의 세종학당과 유사한 해외의 국가주도형 언어기반 문화보급기관은 공자학원(중국), 괴테인스티투트(독일), 브리티시카운실(영국), 알리앙스 프랑세즈(프랑스), 국제교류기금(일본) 등이 있다.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은 ‘문화강연 및 문화강좌, 문화공연, 문화교류, 문화행사 및 전시, 문화연수, 문화학술행사’ 등으로, 언어수업과의 연계 없이 별도로, 그리고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즉 각 기관의 참여자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교육은 없으며, 기관에서 직접 문화교육과정이나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한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강현화 2011; 배재원 2014 참고). 따라서 세종학당의 문화교육과정 개발 및 문화교재 개발 사업은 언어교육과 연계하여 문화교육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외의 어떤 기관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세종한국어』를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확산이라는 목적을 위해 『세종한국어』에 부분적으로 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교재의 ‘일러두기’에 ‘문화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적 자료와 문화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양방향의 문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종학당이 추구하는 상호문화주의가 교재 집필에서도 중시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세종학당의 표준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표준교재는 다음과 같다.

<표 1> 세종학당의 표준교육과정과 표준교재

세종학당 기본 과정								심화 과정		
교육과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1	고급2	기관선택			
표준교재	세종한국어 1	세종한국어 2	세종한국어 3	세종한국어 4	세종한국어 5	세종한국어 6	세종한국어 7	세종한국어 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학당은 중급까지는 필수적으로 세종학당의 표준교육과정을 따르고 표준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급, 즉 심화과정에서는 기관에 자율권을 주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 재단 홈페이지 ‘표준한국어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한국어 교육 단계, 내용, 시간을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학당별로 학습자, 학습 환경 변화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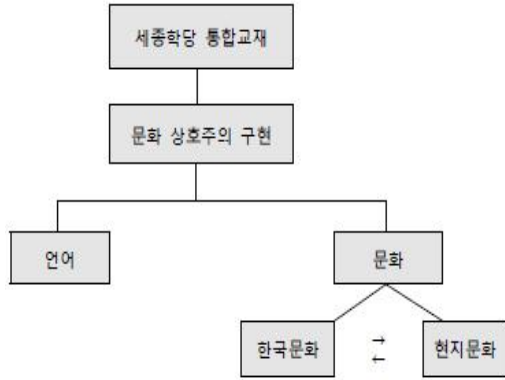
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제시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세종한국어』 각 권의 수업 시수는 60~90시간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이렇게 심화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수업 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세종학당의 표준교육과정은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1)</sup>

다음으로 『세종한국어』 내의 문화 단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4 세종문화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초급에 해당하는 『세종한국어 1』~ 『세종한국어 4』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 네 권의 교재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살펴보도록 한다.

세종학당 교재의 기초 연구가 된 백봉자(2007)에서는 언어교육은 언어생활에 녹아 있는 문화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재도 문화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세종학당 교재 개발의 목표를 ‘자국 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한국문화 이해’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언어의 기능과 언어 행위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통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전제 아래 세종학당의 교재 구성 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백봉자 2007, 148; 배재원 2014, 25-26 재인용).

11) 강영미·이보라미(2013)는 상호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탄력성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선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세종학당의 한국어표준교육과정이 그러한 융통성과 탄력성을 보여준다고 진단하였다.



<그림 1> 세종학당 교재의 구성 원리

교재의 구성 원리나 앞에서 살펴본 교재의 집필 원리를 보면 모두 언어와 함께 문화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상위 원리로 상호문화주의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교재에도 상호문화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세종한국어 1』 ~ 『세종한국어 4』에 포함된 문화 단원의 주제와 단원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2> 『세종한국어1-4』의 단원 주제 및 문화

단원	『세종한국어 1』	『세종한국어 2』	『세종한국어 3』	『세종한국어 4』
1 ~ 3	1. 자기 소개 2. 일상 생활 3. 위치	1. 안부 2. 취미 활동 3. 음식	1. 직업 2. 좋아하는 것 3. 축하	1. 근황 2. 외국생활 3. 초대
문화 1	한국인의 인사법	한국 음식	한국인의 축하하는 날	한국인의 주거 생활
4 ~ 6	4. 물건 사기1 5. 물건 사기2	4. 교통 5. 길찾기 6. 전화	4. 할 일 5. 휴가 계획 6. 쇼핑	4. 결심 5. 문화차이 6. 감사

	6. 어제 일과			
문화 2	한국의 화폐	한국의 대중교통	한국인의 휴가	한국의 결혼 문화
7 ~ 9	7. 날씨 8. 시간 9. 약속	7. 외모 8. 가족 9. 여행	7. 여행과 방문 8. 공공예절 9. 생활습관	7. 공공 시설이용 8. 예약 9. 경험
문화 3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여행지	한국인의 공공 예절	한국의 대중문화
10 ~ 12	10. 주말 활동 11. 한국어 공부 12. 계획	10. 건강 11. 모임 12. 고향	10. 물건 찾기 11. 날씨 12. 부탁	10. 요리 11. 영화와 드라마 12. 패션
문화 4	한국인의 주말 활동	한국 사람들의 모임	한국의 날씨와 음식	한국의 지리
13 ~ 14 / 예비편	1. 한국어와 한글 2. 한글 자모 3. 유용한 표현	13. 기분과 감정 14. 미래	13. 살고 싶은 집 14. 꿈	13. 성격 14. 소감

『세종한국어 1』 ~ 『세종한국어 4』에는 보통 세 개의 단원 이후에 문화를 학습하는 단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문화 단원의 주제는 앞에서 배운 단원의 주제 중 하나와 연계되어 있다. 『세종한국어』의 문화 단원에 대해 박춘태·권연진(2014, 110)은 개설 지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한국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문화 단원의 경우 단원명이 ‘한국인의 인사법, 한국의 화폐, 한국의 사계절, 한국인의 주말활동’ 등 모두 ‘한국의’로 시작하고 있어 단원의 제목에서부터 일방적인 전달로 비칠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서로 나누고 상호작용을 할 것이라면 굳이 모든 단원의

제목에 ‘한국의’로 시작해야 하는지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다음은 문화 단원의 내용과 구성에 관한 것이다. 1, 2권에서 문화 단원은 두 쪽 분량으로 되어 있다. 한 쪽에는 사진과 제

목, 그리고 하나의 대질문이 제시되어 있고, 다른 한 쪽에는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진들, 그리고 비교적 짧은 텍스트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세종한국어 1』 중 문화 4 ‘한국인의 주말 활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 단원은 사진과 텍스트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단원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은 어떤지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여 서로의 문화를 비교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단원의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간의 문화를 나누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문화주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호문화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습자가 충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 교재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게 한 후 하나의 질문을 마지막에 던짐으로써 단원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상호작용을 이끄는 활동을 구성하여 넣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그림에 있는 ‘한국인의 주말 활동’을 예로 들자면 처음 단계에서 ‘사진을 보고 한국인들은 무엇을 자주 하는지 이

야기해 보세요.’라고 하여 사진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도록 이끄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만으로는 상호작용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없다. 이외에 사진 속 행위나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 의견, 느낌 등을 묻는 질문을 첨가하여 상호작용을 돕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호문화주의는 집단성보다는 개별성에 초점을 두므로 마지막 질문의 경우도 ‘여러분 나라의 사람들은 주말에 어떤 활동을 자주 해요?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묻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자 각각이 주말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활동을 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이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을 더 잘 반영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문화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지를 존중하므로 교재에서 문화 학습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문화 단원의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주제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물론 『세종한국어』는 언어 학습이 주가 되는 교재이므로 현실적으로 문화를 깊이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차후 개발될 문화교재에 단원의 대주제와 관련된 소주제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각 학당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혹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문화적 경험에 따라 세부 주제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 2.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 과정 개발 연구>에 대한 분석

세종학당재단은 ‘국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 기관’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한국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2014년에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한국 문화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세종학당 현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013년 2월부터 한 달간 세종학당이 실시한 세종학당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학당 학습자의 33.7%가 한국어 학습 동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꼽았다. 1/3에 달하는 세종학당 학습자들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므로(배재원 2015, 34) 이들에게 한국문화를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나온 결과물, <2014 세종 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앞으로 개발될 세종 한국문화교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과 『세종 한국어』 교재 및 지침서를 바탕으로 문화 교육과정의 원리와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의 개발 원리(배재원 2014, 70~72)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발 원리는 ‘한국어교육과정과의 주제적 연계’이다. 이는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이 연계성, 통합성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는 것, 그리고 문화교육이 세종학당 교재인 『세종한국어』 정규과정 안에서 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한국어 교육과정과의 주제적 연계를 강조하며 『세종한국어』의 각 문화 단원에 제시된 주제에 여러 세부 주제를 통합적으로 구성해 ‘문화 아이템풀(item pool)’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세종한국어』의 문화 단원을 기반으로 구축한 ‘문화 아이템풀(item pool)’ 중 앞 절에서 살펴 본 『세종한국어 1』의 문화 4 ‘한국인의 주말’ 단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 3> 『세종한국어 1』 문화4 ‘한국인의 주말’ 아이템풀

문화 교육 과정	문화 텍스트 개발유형	문화 텍스트 주제	문화 텍스트 내용	시간
『세종한국어 1』 문화 4	문화 텍스트 재구성	한국인의 주말	한국인들이 주말에 즐겨하는 활동 소개	20분
		통계로 보는 한국인의 주말 활동	한국인들이 즐겨하는 주말 활동(연령별, 시대별 통계)	20분
	주제 연계 구성 (심화, 확장)	노래방과 찜질방	노래방, 찜질방 문화 소개	20분
		주말의 한강 풍경	서울을 동서로 흐르는 한강, 주말에 한강을 즐기는	20분

의 주말	v	한국인이 좋아하는 주말 예능프로그램	사람들의 풍경 스케치,	20분
			해피 선데이(1박2일), 일요일이 좋다(러닝맨), 일밤(진짜 사나이)등 한국인이 주말에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소개	

위의 표를 보면 총 5개의 아이템풀 중 『세종한국어』에 제시된 문화 내용을 재구성한 아이템풀이 1~2개이고, 관련 주제를 심화, 확장한 아이템풀이 3~4개로 구성되어 있다. 『세종한국어』의 문화 단원과 주제적으로 연관된 ‘아이템풀’을 다양하게 구축하여 제시한 부분은 각 학당이 처한 상황에 맞게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과 자율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호문화주의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템풀에 제시된 소주제의 경우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차후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소주제에 대한 다각도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의 두 번째 개발 원리는 ‘한국문화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다. 즉 행동문화와 성취문화, 그리고 관념문화를 입체적, 통합적, 역동적으로 묶어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성취문화와 함께 심층의 관념문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바람직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발 원리는 ‘상호문화적 접근’이다. 즉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보고, 각각의 문화가 지닌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개발 원리를 설명하면서 ‘다만 현지 세종학당 학습자가 모두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 다양성뿐만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문화 내적 다양성도 염두에 두고 문화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배재원 2014, 72). 그러나 이는 상호문화주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침언이다. 세종학당 학습자가 모두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의 문화 내적 다양성도 염두에 두고 문화 수업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 학습자 개인의 문화 내적 다양성을 확인하고 나누는 것 역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호문화주의의 특성(집단성이 아닌 개별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이상의 개발 원리를 바탕으로 수업 모형을 내용중심 접근, 과정중심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들어가기-목표 문화 알아보기-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4> 『세종한국어』기반 문화 수업 모형 (배재원 2014, 100 참고)

단계	교수·학습 활동
들어가기 (목표 문화 학습을 위한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의 환기, 목표 문화에 대한 흥미유발하기</li> <li>목표 문화 내용에 대해 추측하기</li> </ul>
목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문화 내용</li> </ul>

알아보기 (목표 문화 설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명하기</li> <li>목표 문화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li> </ul>
함께 이야기해 보기 (목표 문화에 대한 경험나누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문화를 자국 문화와 연계시키기</li> <li>목표 문화에 대한 경험 공유하기</li> </ul>

수업 모형의 단계별 교수·학습 활동을 보면 ‘들어가기’와 ‘목표 문화 알아보기’까지는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함께 이야기해 보기’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한국문화와 자국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자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개인적 경험 나누기 등의 활동이 제시된다. 즉 세 번째 단계인 ‘함께 이야기해보기 단계’에서만 ‘상호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업 모형의 실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단원 구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들어가기

1. 다음 그림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또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곳의 일류 개 좌식은 몸이 불편하신 분, 어린이를 갖고 계신 분, 특히 임신부를 위한 자리입니다. 양보해주세요.

문화 알아보기

•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보아요?

**한국인의 공공 예절**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곳에서는 공공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공공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 예절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켜야 하는 공공 예절도 한국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공공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를 통해 살펴볼까요.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예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와 지하철에는 노약자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약자석을 표시하는 그림이나 특별한 색으로 일반석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약자석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임신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아기와 함께 있는 사람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노약자가 아니면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석에 앉아 있을 때에도 노약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에서는 여성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한국에서는 노인을 먼저 배려합니다. 한국은 연장자를 존중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국의 길거리나 버스 정류장, 공원, 고궁과 같은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흡연은 흡연자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흡연자 주변에 있는 사람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 구역도 있으니 표지판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고궁, 왕릉, 절 등의 공간에서는 조용하고 경건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러한 곳에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찍을 수 없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공공 예절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공 예절도 있고, 나라나 문화에 따라 다른 공공 예절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의 공공 예절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그 나라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1.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2.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함께 이야기해 보기**

1. 여러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 예절은 무엇이에요? 그 공공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 나라의 공공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2.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여러 나라의 공공 예절과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 나라와 다르다고 느낀 다른 나라의 공공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림 3> 『세종한국어』기반 문화 단원 구성 및 텍스트 구성 (배재원 2014, 103-105)

문화 수업 모형에 따른 단원 구성의 내용을 볼 때 전반적으로 상호문화주의의 특성을 반영한 상호교류 및 상호작용 활동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종한국어』에 비하면 상호작용 활동이 더 보충되었으나 ‘들어가기’ 단계에서부터 좀 더 활발한 상호작용 활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들어가기’ 단계에 ‘다음의 그림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 그림의 의미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제한된 질문이 제시되어

있다. 처음 단계에서부터 학습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원의 내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목표 문화 알아보기’ 단계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길고 어렵게 제시되어 있으며<sup>12)</sup> 읽고 난 후에도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만 간단히 제시되어 있어 한국문화의 일방적 전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후 교재를 개발할 때에는 이 두 단계에서도 상호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질문, 혹은 과제(task)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함께 알아보기’에서도 자신의 나라의 공공예절을 묻는 것에서 나아가 개별성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 개인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을 더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목표 문화 알아보기’의 텍스트 내용이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에는 부족해 보이며 내용도 학습자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어렵다. 이는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내용중심 접근법에 따라 구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한국문화 내용을 모두 읽기 텍스트로 구성하여 제시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는 문화교육이 또 하나의 읽기교육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12) <그림 3>은 <2014 세종학당 한국문화교육 과정 개발 연구>에서 예로 제시한 단원 모형으로, 『세종한국어 3』의 문화 4 ‘한국인의 공공예절’을 재구성한 것이다. 『세종한국어 3』은 초급 2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교재이므로 어휘나 문장, 텍스트의 난이도가 초급 중 수준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단원 모형은 어휘나 문장 등이 초급 수준을 넘어서며 텍스트도 지나치게 길다.

#### IV. 상호문화주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교재 개발 방향

세종학당재단은 운영 초기부터, 그리고 표준교재인 『세종한국어』를 개발하고 최근 <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상호문화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매우 추상적으로 이해되어 왔다. 상호문화주의는 단순히 한국문화와 목표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도달되는 이념이 아니다.

세종 한국문화 교재에 상호문화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호문화주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쌍방 간의 적극적 교류와 소통을 기본 특성으로 한다. 그리고 집단성이 아닌 개별성에 초점을 두며,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지를 존중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문화교재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집단의 문화가 아닌 각 개인이 수용하고 받아들인 독특한 문화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항목을 구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문화교재 개발의 기본 자료가 되는 『세종한국어』와 <2014 세종 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에는 쌍방적 상호작용을 위한 활동, 그리고 학습자의 개별적 의견을 나

누는 활동들이 부족했다. 물론 <2014 세종 문화교육과정>의 경우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개의 문화 아이템플을 구축하여 제시한 점은 각 학당, 혹은 각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지를 존중한 방법으로 상호문화주의 이념을 잘 반영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템플로 제시한 소주제가 외국인 학습자들이 꼭 학습해야 할 만큼 중요한 문화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해 보이며, 소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학습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문화주가 실제로 교재에 잘 반영되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수업 모형을 적절히 구성하여야 하며, 수업 모형의 각 단계에서 상호문화주의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종 한국 문화교재’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되는 <2014 세종 문화교육과정>의 경우, 문화 수업 모형을 ‘들어가기-목표 문화 알아보기-함께 이야기해 보기’의 3단계로 구성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문화를 구체적으로 학습하기 전, ‘들어가기’를 통해 주위를 환기하고 목표 문화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도록 한 점, 그리고 목표 문화 학습 후 ‘함께 이야기해 보기’ 단계를 통해 목표 문화를 자국문화와 연계시키고 목표 문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3단계의 수업 모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각 단계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부분은 상호문화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는 3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함께 이야기해 보기’ 단계에만 부분적으로 상호문화주의가 반영되어 있다.

상호문화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단계에서부터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들어가기’에 제시된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목표 문화의 내용을 추측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진과 그림에 대한 개별적 느낌 및 낯섦과 익숙함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활동을 추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목표 문화 알아보기’ 단계에서도 목표 문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목표 문화 내용 중 자신이 기존에 습득해 온 문화와 달라 당황스러운 부분, 혹은 목표 문화 내용 중 의문스럽거나 더 궁금한 부분 등을 찾아 쌍방 간에 서로 확인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목표 문화의 내용을 설명적 읽기 텍스트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내용과 관련된 사진 및 삽화를 함께 제시해 해당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며, 텍스트 형식도 만화나 그림, 노래, 쿡트, 신문이나 잡지 기사 등으로 다양화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세종 한국 문화교재에 상호문화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외에 세종 한국 문화교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실시한 학습자 요구 조사에 따르면(배재원 2014, 66-69) 현지 세종학당 학습자들은 문화 내용에 대한 번역, 그리고 문화 내용과 관련된 동

영상이나 사진자료 등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교재를 개발할 때에도 한국어로 전달이 어려운 문화 내용은 번역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양한 영상과 사진 자료가 담긴 부교재를 개발하여 현지에서의 문화 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수업의 심화, 그리고 현지 교사들의 문화 수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문화 수업의 방법과 단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교사용 지침서 개발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V. 결론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을 넘어 쌍방 간의 끊임없는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의 공존과 융합을 추구하는 이념이며,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들의 적극적 교류와 접촉으로 문화가 변화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유사한 개념으로 자주 거론되는 다문화주의는 상호 간의 적극적인 소통 없이 여러 문화들을 있는 그대로, 잘 구획된 상태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또 다른 차별과 불평등을 낳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상호문화주의가 국가 간 교류가 빈번해지고 지구촌이 세계화, 다문화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이념 중 하나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최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해외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의 이념으로, 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이상적인 이념으로 상호문화주의가 자주 인용, 거론되고 있다. 국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적극 보급하고자 정부에서 설립한 ‘세종학당재단’ 또한 운영 목적에서부터 상호문화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념에 따라 표준교재인 『세종한국어』 및 ‘세종학당 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단계별 문화교재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상호문화주의’가 세종학당이 개발할 한국문화교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상호문화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특성을 교재에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에 개발된 세종학당 표준교재

『세종한국어』와 <2014 세종문화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세종학당의 한국문화교재 개발 사업은 해외의 여러 국가주도형 언어기반 문화보급기관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매우 진취적이며 의미 있는 사업으로 타 기관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세종학당재단에서 추진하는 문화교재가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문화주의 이념을 반영한 교재로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이 서로 간의 문화를 진지하게 나누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문화의 낯설함과 이질감, 충격을 넘어 공존과 융합의 길을 모색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논의를 마친다.

## 참고문헌

- 강미영 · 이보라미, 2013, “문화상호주의 기반 언어 정책 접근 방식에 관한 고찰 : 국외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1-3, 한국사회언어학회, pp 1-24.
- 강현화, 2011,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 2013, 『세종한국어』1-4, 도서출판 하우.
- 김정숙, 2011,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교재 개발 과제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 김정숙 · 이 준호 · 장 미라, 2011, “세종학당용 초급한국어 표준교재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설계방안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pp 19-43.
- 김중섭, 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_\_\_\_\_, 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박춘태 · 권연진, 2014, “한국어 국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95, 인문과학연구소, pp 99-119.
- 박혜숙, 2014, 『이주배경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 독일 사례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배재원, 2014, “2014 세종학당 문화교육 과정 개발 사업 최종 보고서”, 세종학당재단.
- 배재원 · 김민정, 2015, “『세종한국어』 기반 문화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세종한국어 1-4권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8, 이중언어학회, pp 33-58.
- 세종학당재단, 2014, “세종학당 운영 지침서”(2014년 개정), 세종학당재단.
- 심연수, 2013,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인의 시민성 함양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8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 40-67.
- 이민경, 2014, “대학평생교육으로서 다문화교육과정 방향성 고찰: 유럽 상호문화역량학위(EDICC)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4-2,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 pp 1-35.
- 이혜영 · 박 선희 · 최 은지, 2011,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교재의 단위 모형 개발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pp 321-342.
- 윤 영, 2015, “한국의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성”, 『인류세 시대의 세계시민성』, 광인문화사.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42-2, 한국사회학회, pp 72-103.
- 이승연 · 김희선 · 이동은, 2015, “국외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세종학당 체험중심문화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 『이중언어학』 59호, 이중언어  
학회, pp. 197-220.
- 정기섭, 201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  
에서 본 상호문화역량”, 『교육의  
이론과 실천』, 한독교육학회, pp  
133-149.
- 진은영, 2008,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인  
권”, 『철학』 95, 한국철학회,  
pp 255-283.
- 최병두, 2014, “상호문화주의로의 전환과  
상호문화도시 정책”, 『현대사회  
와 다문화』, 4-1, 다문화사회정  
책연구소, pp 63-118.
- 최승은, 2015,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교사의 음악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 홍종열, 2012, “유럽의 다문화사회와 상  
호문화교육에 관한 고찰”, 『인문  
과학연구』 30집, 성신여대 인문  
과학연구소, pp 383-411.
- 누리세종학당홈페이지 <http://www.sejonghakdang.org>
- 세종학당재단홈페이지 <http://www.ksif.or.kr>

## References

- Faas, Daniel; Christina Hajisoteriou; and Panayiotis Angelides. 2014. "Intercultural Education in Europe: Policies, Practices and Trend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0 (2): 300-318. [https://www.academia.edu/9463751/Intercultural\\_Education\\_in\\_Europe\\_Policies\\_practices\\_and\\_trends](https://www.academia.edu/9463751/Intercultural_Education_in_Europe_Policies_practices_and_trends).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Bae Jae-won and Kim Min-jeong. 2015. "Study on Developing a Curriculum Design of Cultural Education based *Sejong Korean*: Focusing on volume 1-4 of *Sejong Korean*." *Bilingual Research* 58: 33-58.
- Choi Byung-doo. 2014 "Transformations Directed towards Interculturalism and an Intercultural City Policy."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4 (1): 63-118
- Choi Seung-eun. 2015 "A Study on the Experience in Music Education of Elementary Teacher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Inha University.
- Chung Ki-seob. 2011. "Intercultural Competence from the Point of View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6 (3): 133-149.
- Hong Jong-youl. 2012 "Study on Multicultural Society in Europe and Intercultural Education." *Humanities Research* 30: 383-411.
- Jin Eun-young. 2008. "Multiculturalism and Radical Human Rights." *Philosophy* 95: 255-283.
- Kang Mi-young and Lee Bo-la-mi. 2013. "A Study on the Strategy of Approach for Languag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culturalism: Focused on the Projects of the Korean Language Overseas Diffusion Policy."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1 (3): 1-24.
- Kim Chung-sook, Lee Jun-ho, and Jang Mira. 2011. "A Study on Developing a Syllabus for the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Sejong Hakdang; Beginner Level.'" *Bilingual Research* 46: 19-43.
- Lee Hai-young, Park Sun-hee, and Choi Eun-ji. 2011. "Developing Model Units of a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Sejong Hakdang: Beginner Level." *Bilingual Research* 46: 321-345.
- Lee Min-kyung. 2014. "Analysis of the European Diploma in Intercultural Competence (EDICC):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4 (2): 1-35.
- Lee Seung-yeon, Kim Hee-sun, and Lee Dong-eun. 2015. "A Study on Overseas Korean Culture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Based on Research Results from Experience-centered Culture Program Development for the King Sejong Institute." *Bilingual Research* 59: 197-220.
- Park Choon-tae and Kwon Yeon-jin. 2014.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Language Overseas - Focusing on the King Sejong Institute."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of CNU* 95: 99-119.
- Park Hye-suk. 2014. "A Study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Immigrant Lear

ners: A Comparative Analysis with German Intercultural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Shim Yeon-soo. 2013. "A Study on Fostering Korean Citizenship to Consolidate National Identity."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38: 40-67.

Yoon In-jin. 2008.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2 (2): 72-103.

Yun Young. 2015. "A Study of Global Citizenship Based on Family-Oriented Collectivism Values in Korea." *Global Citizenship in the Anthropocene*, edited by Na In-Seop, 76-105. Institut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Hoonam University.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http://www.ksif.or.kr>

NURI - SEJONG INSTITUTE FOUNDATION  
[www.sejonghakdang.org](http://www.sejonghakdang.org)